

Amateur Radio Policy of U.S. Forces Korea Command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Sangkil Yoo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Visual Media Communication, Shinhan University, Uijeongbu, Korea

[Abstract]

As the starting point of a full-fledged historical study on amateur radio in Korea, this study deals with the policy on amateur radio conducted by the U.S. Forces Korea Command aroun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fter Korea's libera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amateur radio policy of the U.S. Forces Korea Command, which has not been established in Korea, through a U.S. document held by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Archives (NARA), and on the other hand,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s policy, what the amateur radio activities of Koreans in Korea were like until the Korean War after liberation. Since then,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the social constructivism of technology', we have tried to clarif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amateur radio policy of the U.S. Forces Korea Command. The amateur radio policy of the U.S. Forces Korea Command was a kind of 'cold taming' policy,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king the image of a 'secret document' created in the Cold War situation emerge rather than the 'square' imagery on the basis of the institutional form of amateur radio ham.

▶ **Key words:** Amateur Radio, Technology Culture, SCOT, Cold War, the U.S. Forces Korea Command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적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광복 이후부터 정부 수립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 주한미군사령부가 펼쳤던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정책을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사실 규명이 되지 않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미국 국가문서보관청(NARA)이 소장한 미국 문서를 통해 사실적으로 밝힌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복 이후 6.25 전쟁까지 국내 한국인들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정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정책은 일종의 '냉전적 길들이기' 정책이었고, 이는 아마추어 무선 햄이라는 제도적 형태의 기층(基層)에 '광장의 음향 미디어'로서의 이미지보다는 냉전적 상황에서 벗어난 '비밀스러운 문서'의 이미지가 발현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 **주제어:** 아마추어 무선, 기술 문화,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냉전, 주한미군사령부

* First Author: Sangkil Yoon, Corresponding Author: Sangkil Yoon

*Sangkil Yoon (cyrus92@shinhan.ac.kr), Dept. of Visual Media Communication, Shinhan University

• Received: 2025. 09. 19, Revised: 2025. 10. 15, Accepted: 2025. 10. 22.

I. Introduction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대중화되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비롯한 OTT서비스가 대중적 붐을 이루고 있는 현 시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전파를 주고 받으며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와 우정을 쌓는 음향 미디어인 아마추어 무선 햄(amateur radio HAM)은 일종의 '낭만적인 취미'이거나 시대에 뒤쳐진 유물로 치부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던 1960년대에 아마추어 무선 햄은 한국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이끌 과학 인재 양성의 주축으로 역할을 했던 바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전문업체(메이커)가 제조한 제품을 그저 구매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제작자(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지구적 메이커 운동'(global maker movement)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한국의 창의적 기술문화의 원류(原流)를 찾으려는 학술적·사업적 시도가 전개된 바도 있었다[1]. 그리고 최근에는 그 원류로서 아마추어 무선 햄에 주목하고 한국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2].

다행스럽게도 1960년대 중반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단행본[3]이 발행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조직 활동을 정리한 통사 <KARL 65년사, 1955-2020>이 2023년에 발행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아마추어 무선 햄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와 의의를 지니는지를 규명할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역사 서술의 초점이 조직의 활동사에 두어져 있었던 만큼, 아마추어 무선애호가와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던 중요한 요인이었던 국가와의 관련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광복 이후 1950년대 한국 아마추어 무선애호가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던 미군정의 역할에 대해선 사실상 거의 규명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한국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적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광복 이후 정부 수립을 전후로 한 시기 주한미군사령부가 펼쳤던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정책을 사실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사실 규명이 되지 않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사실적으로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정의 정책 하에서 광복 이후 6.25 전쟁까지 국내 한국인들의 아

마추어 무선 활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본고에서는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사회의 제도로 정착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 시각인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정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혀 사실 규명이 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연구 목적 중의 하나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미 메릴랜드주 소재 미국 국가문서보관청(NARA)이 소장한 자료 문서군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문서 및 개인적으로 입수한 문서를 대상으로 아카이브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역사학적 사실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 Acoustic Media as a Square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구성주의(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SCOT)' 이론은 기술 문화사나 기술과 문화 간의 관계를 조망하는 이론적 자원으로써 유용한 관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다. 특히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이 주로 주목하는 초기사(初期史) 국면, 즉 테크놀로지가 사회의 한 제도이자 미디어로 정착되는 국면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연구해 온 요시미 순야는 20세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등장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아마추어 무선 햄과 같은) 음향(音響) 미디어들의 계보를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으로부터 정리한 바 있다. 요시미 순야의 분석은 어느 한 음향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해당 미디어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상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료화시켰다는 점에서, 정부 수립을 전후로 한 시기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려는 본고의 작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르면, 전화나 축음기, 라디오 등과 같은 음향 미디어를 특정 형태의 장치로 존립시켰던 것은 어디까지나 변용의 계기였던 '사회'였다. 실제로 초창기에 있어서 전화는 여러 번 방송적 미디어로 이용되었고, 축음기는 오히려 편지적인 미디어로 생각되었으며, 라디오 또한 여러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세 가지 음향 미디어에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즉, 한편으로는 이러한 미디어

를 편지와 같은 문서나 전신(電信)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즉, 특정 인간 사이에 정보를 빠르게 전하거나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로 확립하려고 하는 지향으로서, 주로 발명가인 벨과 에디슨, 그 밖의 기술 엘리트의 근저에 있었던 발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음향 미디어들을 ‘극장의 복제’로 생각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즉, 확장되고 있는 사회층이 음악이나 연극, 말들을 향유할 수 있는 오락 장치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향이 존재했던 것이다. 얼마 안 있어 이 두 가지 힘은 한쪽은 ‘통신’으로, 다른 한쪽은 ‘방송’으로 분기되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제도적 형태의 기층(基層)에는 그럴 정도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서 ‘문서’ 이미지와 ‘극장’ 이미지가 서로 얽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시미 순야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음향 미디어가 통신으로도 방송으로도 구분하지 않는 양태가 등장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음향 미디어에 매개되면서 공동체의 공동성이 새로운 형태로 네트워크화되는 계기를 내포하고 있는 사례로 ‘아마추어 무선’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20세기 전환기 음향 미디어가 단지 용건을 전달한다거나 즐거움을 소비하는 수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뽐낼 몫치는 도구로서, 또는 그런 관계 형성의 ‘광장’과 같은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적 관점을 ‘광장으로서의 음향 미디어’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4].

2. The Early History of Amateur Radio Ham as a Square

그렇다면 ‘광장으로서의 음향 미디어’인 아마추어 무선 햄은 초기에 어떠한 과정을 발전해 왔는가? 1895년 마르코니가 무선전신을 발명한 이후, 그는 1897년에 영국에서 무선전신의 회사를 창립하여, 1900년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선전신에도 성공했다. 이후에 음성을 송수신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유선통신과 다르게 무선통신은 기본적으로 주파수만 맞으면 누구든지 그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특성이 있었다[5].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무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아마추어 무선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퍼져갔다[6].

미국에서는 광석검파기의 개발에 의해 비교적 싼 무선기(無線機)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던 1906년경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선이 붐을 이뤄, 아마추어들에 의한 풀뿌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폐품을 모아 여러 가지 공부를 수행하고 옥탑방이나 창고에 자신만의 무선국을

설치하였다. 1910년경까지 미국에서는 몹시 인기있는 것이 되어, 1912년 시점에서 <뉴욕타임즈>는 아마추어 무선애호가 총수를 10만 명 이상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으며, 무선 매니아를 위한 전문지도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전파를 통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서로 알게되는 것이 취미가 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선에 의한 교신에 몰입하고 있었다. 1912년 라디오 법이 제정되어 아마추어 무선에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으나 무선 매니아의 확대는 그치지 않았다. 정부의 면허를 얻은 아마추어 무선국은, 1913년 322국에서 1916년 10,279국으로, 다음 해인 1917년에는 13,581국으로 격증했다. 그 이외에도 팽창하는 무면허의 아마추어 무선국이 존재하게 되어, 그 숫자가 1917년에 15만 국 이상에 달했다고 생각되고 있다[7].

III. Amateur Radio Policy of U.S. Forces Korea Command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and Meaning

한국 아마추어 무선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당시엔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해 운용되어 한국인은 3~4명으로 소수에 불과했다[6]. 그리고 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그 명맥이 끊겼던 한국 아마추어 무선은 광복 이후 부활할 수 있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탈식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첫 번째는 상당 기간 일제강점기의 프리픽스(PREFIX)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광복 이후의 혼란기를 틈타 한국인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의해 활동이 재개되었다는 점이다.

1. Amateur Radio Policy of the U.S. Forces Korea Command during the U.S. Military Period

이미 1910년대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중화되어 일종의 취미 문화로 정착되었던 미국의 아마추어 무선문화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주한미군들은 광복 이후의 혼란기를 틈타 무단으로 아마추어 무선전파를 발사하였다. 처음에 이들은 J8의 프리픽스를 사용하였다[8]. 미군 진주와 함께 미군 병사와 함께 민간인이었던 군무원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전파 송신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탓인지, 1947년 7월 2일 주한미군사령부(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는 ‘주한미

군과 군무원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 운영과 관련된 규정'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남한 내 주한미군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규제하는 틀을 마련하였다[9].

주요 핵심 사항으로는, 남한 내 주한미군과 군무원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시설의 운영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아마추어 허가 요건, 아마추어 운영 요건과 관련된 미군 당국의 조항과 미국 정부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조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영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세 가지(A, B, C) 운용 등급이 있었다는 것인데, 등급 A의 인가자에게는 모든 아마추어 특권을 허가해 주는데 반해, 등급 'B'와 'C'의 인가는 14.150-14.300 MC 대역대의 발신을 제외한 특권을 허가해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마추어 무선의 인가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1) 주한미군사령부 본부로부터의 문서에 의한 인가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고, 2) 이미 미국에서 인가를 받은 아마추어 무선 인가는 1948년에 만료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 사용하려면 주한미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령부의 인가는 오직 남한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고, 3) 양호하게 설비된 장비에게만 최소한 숫자로 인가하는 것은 전파 혼신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아마추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규정 공포 이후 주한미군사령부는 1947년 8월 22일 인가된 남한 내 아마추어 무선국을 발표하였다[10]. 인가된

아마추어 무선국 수는 총 21개(A등급 9개, B등급 13개)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사령부의 공보 및 통신 관련 직원들이 대다수였고, 김포 미군기지와 미국의 방송수신기 제작사인 RCA 관계자 및 주한미군방송(AFRS) 관계자에게도 인가된 것이 눈에 띈다. 이후, 1947년 9월 3일 미군정이 ITU(국제통신전기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로부터 남한의 무선 호출부호로 'HL'을 받게 되자, 주한미군의 아마추어 무선국도 HL의 프리픽스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1월 25일에도 총 10개의 아마추어 무선국이 주한미군 인력에게 인가되었[11]. 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 수립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HL을 프리픽스로 하는 아마추어 무선국 인가를 부여하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의제기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 및 주한군사고문단(KMAG,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은 점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주권을 염두에 두면서 처리하기 시작했다. 다음의 미국문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은 한국 정부에 인가 권한을 넘겨주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정책적 입장이 한국 정부로부터 통신주권 차원의 이의제기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마추어 무선 통제에 대한 양국 간 행정 협조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자면, 1949년 3월 9일 주한미군사

Table 1. List of amateur radio stations in South Korea authorized on August 22, 1947

CALL	CLASS	LICENCEE	GRADE	MAILING ADDRESS
J8AAA	"A"	S. Guy Blencoe	Major	Signal Section, X XIV Corps, APO 235
J8AAB	"A"	Ollie J. Allen	Major	Dept of Comm, USAMGIK, APO 235 Unit 2
J8AAC	"A"	H.B.Whitehouse	Major	Dept of Agri, USAMGIK, APO 235 Unit 2
J8AAD	"B"	D. C. Gaumer	Capt	7th Sig Co, 7th Inf Div, APO 7
J8AAE	"B"	J.E. Van Beever	Pfc	76th Sig Serv Bn, APO 235
J8AAF	"A"	Irving Mentcher	Cpl	Hqs Kimpo Army Air Base, APO 712
J8AAG	"B"	N.K. Maxwell	Capt	1st Inf Regt, 6th Inf Div, APO 6 unit 1
J8AAH	"B"	W.E. Rubin	1st Lt	7th Sig Co, 7th Inf Div, APO 7
J8AAI	"B"	W.W. Burt	Civ	RCA Communications, APO 235
J8ACS	"A"	W.R. Plumlee	M/Sgt	59th AACS Det, Kimpo AAB, APO 712
J8AAJ	"B"	C.A. Stanley	Lt Col	Dept of Comm, USAMGIK, APO 235 Unit 2
J8AAK	"B"	Jack Hecht	Capt	6th Sig Co, 6th Inf Div, APO 6
J8AAL	"B"	F.H. Finney, Jr.	Civ	Hqs Kimpo Army Air Base, APO 712
J8AAM	"A"	L.S. Gardner	Lt Col	Signal Section, X XIV Corps, APO 235
J8AAN	"B"	E.A. Parrish	Major	39th MG Co, APO 59
J8AAO	"B"	M.W. Neill	Civ	AFRS, WVTP, APO 235
J8ASC	"A"	A.A. Merriam	T/4	76th Sig Serv Bn, APO 235
J8AAP	"A"	P.S. Huston	Capt	7th Div Sig Co (DH L-37), APO 7
J8AAQ	"B"	R.M. Morris	Capt	48th F. A. Bn, APO 7
J8AAR	"B"	R.H. Brown	T/4	4th Ord M M Co, APO 901
J8ABC	"A"	T.J. Speer	Capt	Dept of Comm, USAMGIK, APO 235 Unit 2

* Source : "Memorandum from Brigadier General Roberts to Distribution: Authorized Amateur Radio Stations in Korea", January, 25, 1949(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8)

령부는 주한경제협력처(ECA)¹⁾에 아마추어 무선과 관련된 공문서를 보냈는데, “현재 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은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해 인가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ECA 또한 아마추어 무선국의 공식적인 인정과 인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공문을 받을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의한 민간 인가가 요청되는 아마추어 무선국, 무선국 인가자와 운영자,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해 인가된 주파수의 목록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13].

Table 2. List of amateur radio stations requested by the then U.S. Forces Korea Command on 9 March 1949

STATION CALL SIGNS	OPERATORS (* STATION LICENCEE)	OPERATORS LICENSE CLASS
HL1AE	KIMPO AIRDRONE, APO 929 Jensen, M. G. Sgt* Hepner, Francis M/Sgt	A A A
HL1BB	SEOUL, KOREA, APO 235 Hathaway, Geoge G. 1st Lt* Channing, G. Cpl	A A
HL1BJ	SEOUL, KOREA, APO 235 Mawby, R. U. Captain*	A
HL1BN	FIHEI, KOREA, APO 235-1 Erwin, H. 1st Lt*	B
HL1BO	ASCOM CITY, KOREA, APO 235-1 Dolan, Mh. WOJG*	B
HL1BP	SEOUL, KOREA, APO 235 Lee, F. 2nd Lt*	B
HL1BQ	SEOUL, KOREA, APO 235 Johnson, K. L. Col*	B
HL1CQ	SEOUL, KOREA, APO 235 Charles, O. G. Lt Cpl*	B
HL1CN	SEOUL, KOREA, APO 235 Hunter, E. H. Sgt*	B

* Source : “Amateur Radio Stations”, March 9, 1949(RG 554, AG676 Applications for USAFIK Amateur Radio Station Licence 1949)

같은 날 주한미군사령부는 인가요청을 한국 정부의 체신부에 하였고, 이에 대해 1949년 3월 15일 체신부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의 인가 권한이 한국의 아마추어 무선 운영에 대한 규정에 따라 부여될 것이고,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자격과 무선국의 자격이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아마추어 무선국과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한국의 법률과 규정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1946년 아마추어 무선 서비스에 관한 규정’과 당시 주한미군사령부의

규정과 유사하며, 향후 한국 체신부는 (신청자가 주한미군사령부의 검사를 통과하고 미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의 민간 인가 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제안하였다[14].

이렇게 아마추어 무선국 관리에 대한 양국 간의 업무 협조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당시 전파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수립을 전후로 한 시기, 한국의 전파 관리 상황은 시설적인 측면에서나 인력적인 측면에도 대한 취약한 상황이었다. 광복 후 한국 전파관리체계의 시작은 1947년 6월 1일 체신부 전무국 무선과 직속의 광장분실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체신부 전무국에서 근무하던 직원 세 명이 광장분실로 발령받아 이전의 경성무선통신감시소 시절 설치했던 주파수측정장치 2대 중 1대를 수리해 불법 및 무선통신보안 위주의 전파감시업무를 시작했다. 매일 일본 JY시보를 수신해 중요 주파수에 대해 초보적인 측정 업무를 실시했다”. 또한, “미 군용수신기(R-390) 3대를 이용해 감청 업무를 했으나 인원과 장비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도 무선통신을 비롯해 공중통신 이외의 시설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신설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었지만, 당시 체신국은 통신 소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불법시설과 불법전파의 발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15].



Fig. 1. First Radio Monitoring Equipment R-390 Receiver * Source :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 2017, p.28.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인가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의 검사를 통과하고 미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라는 조건 하에 허가한 것은 당시의 정부 역량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 주권

1) 단독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에 미국은 한국과 원조협정을 체결하고 ECA 원조를 도입하였다. 단독정부수립 이후 도입되었던 ECA(경제협력조처,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의 의도는 분명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 산업부흥에 있었다[12].

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체신부는 부족한 전파감시시설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전파 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1949년 3월 22일 자로 체신부 전무국은 '미군 무선국 WVLZ의 규정 위반'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주한미군사령부에 보냈다. 미군 선박에 의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1949년 4월 29일자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꼼꼼한 검토 후 상세하게 답신하였다[16]. 즉, 보고된 위반은 주로 500 Kc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데, 선박과 해안 간의 교신에 사용되는 500KC 주파수 대역에 대한 규정은 ITU 조인국(signatory nation)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미군 무선국 WVLZ의 규정 위반은 전파의 휴지기 동안 긴급 SOS신호가 발신된 것이거나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주한미군사령부의 조직 및 인력 변경이 있었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정 위반에 대해 정확한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선, 위반이 발생하는 즉시 체신부가 인편으로나 전화로 주한미군사령부에 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이러한 주한미군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에 대해 행사했던 한국 정부의 통신주권은 1949년 5월 31일부로 개시된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인가권 확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 정부의 아마추어 무선의 민간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로서 1949년 4월 20일 자로 자신이 부여한 기존의 아마추어 무선 자격을 취소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단, 주한군사고문단(KMAG)에 배정되었던 [표 2]의 아마추어 무선국 중에서 4개에 국한하여 한국 정부의 인가에 의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17]. 이후 6월 2일과 6월 3일에 걸쳐 1개가 추가된 5개 주한군사고문단의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민간 인가 절차와 4개에 대한 민간 인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었다[18]

Table 3. Amateur radio station of the Korea Military Advisory Group requested by the U.S. Forces Korea Command on June 3, 1949

STATION	NAME	RANK	TYPE of LICENSE	UNIT
HL1CQ	Charles, O. G	Lt Col	B	KMAG
HL1BJ	Mawby, R. U.	Capt	A	KMAG
HL1BM	Erwin, H.	1st Lt	B	KMAG
HL1BQ	Johnson, K. L.	Cpl	B	KMAG
HL1AE	Hepner	M/sgt	A	Kimpo

* Source : "Letter", June 2, 1949(RG 554, AG676 Applications for USAFIK Amateur Radio Station Licence 1949, W. A. Gregory → Chief, Communications Bureau). "Letter", June 3, 1949(RG 554, AG676 Applications for USAFIK Amateur Radio Station Licence 1949, W. A. Gregory → Whang Kup Sung, Chief, Communications Bureau).

그렇지만, 6.25 전쟁의 발발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전파 통제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미국인의 아마추어 무선 운용은 축소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단적인 예로, 1951년 3월 1일, 미8군 사령관은 주한군사고문단의 아마추어 무선 운용 축소가 필요하다는 요청하였다. 요청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지휘관들은 배속된 모든 단위들에 '한국 내의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영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 만약 그러한 전파가 자신의 지휘권 내에서 행해진다면, 각 지휘관들은 아마추어 무선국 운영의 즉각적인 축소에 영향을 주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무단으로 아마추어 무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규율적 수단에 굴복할 것이다"[19].

지금까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전후 시기에 주한미군사령부가 펼쳤던 아마추어 무선 정책을 살펴보았던 바, 정부수립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주한미군의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통제 권한이 한국 정부에 이양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과 관련하여 통신 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주한미군사령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가 권한이 한국 정부에 이양된 이후에도 전파 감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주한미군사령부의 검사를 통과하고 미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라는 조건 하에 민간 인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둘째, 6.25 전쟁 발발로 인한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 축소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ITU가 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파수 배정의 권한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부에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부수립과 더불어 미국인에게 인가된 아마추어 무선국의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미국인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은 원조기관인 주한경제협력처(ECA)이나 주한군사고문단(KMAG)에만 국한됨으로써, 점차적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수립 이후 6.25 전쟁 시기까지 기간 동안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사실상 주한미군사령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Koreans' Amateur Radio Activities From Korea's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에서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영이 정지된 이후, 광복과 더불어 새롭게 아마추어 무선 활동이 재개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에서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은 미군 병사와 함께 민간인이었던 미군인 군무원에 의한 것이었다. 미군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

은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해 아마추어 허가 요건 및 등급, 운영 요건, 그리고 미국 정부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조항 등과 같은 규제의 틀이 마련됨에 따라, 이전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아마추어 무선 활동은 점차적으로 통제될 수 있었다. 이에 미국인이더라도 하더라도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영하는 사람의 수는 1947년에 처음으로 인가된 21개에서 6.25 전쟁 발발 전까지 5개로 축소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 규제의 적용 대상이 비단 미국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광복 이후 국정 운영의 주체가 미군정이었기에, 명문화되진 않았으나 1947년에 마련된 ‘주한미군과 군무원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당연히 미군정의 통치 대상인 남한의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부나마 존재했던 한국인 아마추어 무선애호가들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한국 아마추어 무선애호가의 자기 인식에 따른 정의로 이어져, 그 자체로 소위 ‘UC’(Under Cover), 즉 불법 아마추어 무선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마추어 무선애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잡지 기사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조요한이라는 인물의 일화이다. 광복 이후 한국 아마추어 무선애호가 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과학 관련 이론서이자 제작서였던 <무선과학>의 저자이기도 했던 조요한과 그 두 형제를 들 수 있다. 1960년에 실린 <전파과학>의 기사에서는 광복 이후 조요한 형제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상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조요한의 경우엔 미군정 시대부터 무허가 상태에서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시작했지만, 무허가 교신이었던 탓에 불미스러운 소동과 관련된 일화를 남겼다. 즉, 당시 경기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조요한은 HL1PC라는 콜(Call)로 UC를 시작했는데, QTH, 즉 “이곳의 위치는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입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아마추어 무선국의 위치를 묻거나 위치를 알릴 때 사용하는 진폭변조(Amplitude Modulation, AM)를 일일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미군 군사경찰(MP, Military Police)이 아마추어 무선국이 위치해 있던 궁정동(宮井洞)에 있던 조요한의 집을 포위하고 가택수색을 하였다. 또 경기중학교에는 무장 경관 한 트럭이 들이닥쳐 교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 및 학생들을 놀라게 했으나, 정작 본인은 실험실에서 몇몇 선생님의 흥미진진한 참관 하에 열심히 CQ(아마추어 무선에서 불특정 상대방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약호)를 부르고 있었던 소동이 벌어졌다. 이 MP 소동은 교장의 진정으로 무사히 해결되었다[20].

그러나 이러한 조요한의 일화에서 미군 군사경찰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1947년에 마련된 ‘주한미군과 군무원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한국인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사례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당시의 냉전이라는 시공간적 맥락을 고려해 보자면, 다시 말해 광복 이후 점차 분단의 질서가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남한이 전 세계적인 냉전 질서의 최전선으로 치닫고 있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통제가 혹여 있을 수 있는 적성 국가(소련과 북한 등)와의 교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냉전이라는 글로벌한 긴장의 시기에 편재된 ‘비밀주의나 고립의 기류’[21]속에서 입안되고 실행된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국 통제는 사적이고 국제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아마추어 무선 애호가들을 간첩으로 의심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토대, 또는 ‘냉전적 길들이기’의 제도적 토대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자면,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5월 31일부로 아마추어 무선국의 인가 권한을 이임 받은 한국 정부가 서둘러 1949년 8월 13일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을 공포하고 그해 11월 22일 서울, 이듬해 부산, 광주에 체신부장관 소속으로 전파감시국을 설치함으로써 전파감시를 강화하고 전파감시를 본격화한 것[15] 또한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미군정의 ‘냉전적 길들이기’ 정책을 이어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요한의 MP에 대한 경험, 다시 말해 미군정의 ‘냉전적 길들이기’ 정책을 내면화한 경험은 두 동생인 조요성과 조요운에게 영향을 미쳤고 두 동생 또한 UC로 인해 체신부에 호출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20]. 또한 6.25 전쟁 무렵까지 조요한과 함께 대표적인 UC로 활동한 인물의 하나였던 정혜선은 콜사인 HL1AA를 사용하여 UC 활동을 했다. 그는 종전 직전 15사단에 보급 장교로 있으면서 부산에서 통신차 보급으로 받은 무선기로 시험 전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교신할 데 없어 처음으로 상당히 높은 출력과 넓은 대역폭으로 7Mhz대에서 신호를 내어 일본 측으로부터 교신 방해의 항의 요청을 받는 말썽을 겪은 경험을 발판 삼아, 전후에 콜사인 HL1AA를 만들어 UC 활동을 벌였다. 한편, HL1TA를 사용했던 강기동은 내무부 치안국 특수정보과 중앙분실에 불려가기도 했다. 별다른 혐의 없이 풀려났고 오히려 그들의 업무를 돕기도 했다[8].

이렇듯 정부 수립 이후 초기 한국의 적극적인 무선애호가들이 1950년대 말까지 빈번히 체신부의 호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데에는,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인가가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미군정의 ‘냉전적 길들이기’ 정책이 가져온, 정책 당국자에 대한 심정적 위축 효과 때문이었다. 실제로 1955년 4월 20일 창립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체신부 인가(1957.4.29.)가 늦어졌던 주요 이유는 “무선을 이용하여 허허실실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간첩통신’으로 간주”[22]하였던 체신부의 태도 때문이었다. 이처럼 6.25 전쟁으로 인해 남북 간 대립과 전 세계적인 냉전 질서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체신 당국에서는 무선 국허가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마추어 무선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한국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적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광복 이후 정부 수립을 전후로 한 시기 주한미군사령부가 펼쳤던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정책을 사실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정의 정책 하에서 국내 한국인들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주한미군사령부의 아마추어 무선 정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었다.

기본적으로 ‘광장으로서의 음향 미디어’라는 가능성을 지닌 아마추어 무선 햄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사회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무선 햄에 대한 사회적 심상(imagery)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군정기 주한미군사령부가 1947년 7월 2일에 제정한 ‘주한미군과 군무원에 의한 아마추어 무선 운용에 관한 규정’은 일종의 ‘냉전적 길들이기’ 정책으로서 이후 한국 아마추어 무선 햄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아마추어 무선 정책을 담당하는 체신부 관료로 하여금 ‘아마추어 무선 햄을 허용할 경우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의 교신을 통해 남한이 적색화될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기도록 하였고, 이러한 심정적 위축 효과로 인해 적극적으로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통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특히 아마추어 무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는 ‘아마추어 무선 햄 활동은 곧 간첩 활동’이라는 사회적 인

식이 성립되는 데 크게 작용했던 제도적 요인이었다.

둘째, 미군 군사경찰, 즉 MP 소동이 아마추어 무선애호가 사이에 자주 언급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추어 무선 햄에 대한 사회적 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무선 냉전의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마추어 무선 활동은 일종의 이적 행위, 즉 간첩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아마추어 무선 햄이라는 제도적 형태의 기층에 ‘광장의 음향 미디어’로서의 이미지보다는 냉전적 상황에서 빚어진 ‘비밀스러운 문서’의 이미지가 발현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비밀스러운 문서’의 이미지는 무선애호가들의 자기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 아마추어 무선애호가들의 뇌리 속에 각인된 MP 소동은 아마추어 무선애호가들이 스스로 ‘불법’, 즉 UC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로써, 광복 이후 아마추어 무선의 제도화는 1950년대 중후반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한국 미디어 역사에서 아마추어 무선 햄은 거의 조명되지 못한 음향 미디어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추어 무선 햄은 관계와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냉전기의 중앙집권적 국가에 의해 그 가능성은 봉쇄되었다. 때문에, 이 광장의 음향 미디어는 장기간 일반 대중의 의식 속에서 거의 사라진 미디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역사의 시계추를 돌릴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테크놀로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기 점차적으로 진행된 아마추어 무선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hinhan University Research Fund, 2025

REFERENCES

- [1] Hyunwoo Shin, and Kwang-Suk Lee, “A Critical Review for Korea’s Maker Culture Trends : Between National Development

- Discourse of Maker and Possibilities in The Everyday Culture”, Human Content, Vol. 45, 2017. DOI : 10.18658/humancon.2017.06.45.207
- [2] Sangkil YOON, “Research Perspectives and Research Issues on the Origins of Korean Technology Culture: Focusing on Amateur Radio”,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9, No.10, 2024.
- [3] Dong-in Cho, “The Radio Wave of Friendship: An Amateur Radio Story”. Jeonjagisulsa, 1965.
- [4] Yoshimi,SHUNYA, “History shapes the Media : the social construction of audio media”, Mass Communication Studies, Vol. 42, pp.90-93, 1993. DOI : https://doi.org/10.24460/mscom.42.0_80
- [5] Iida YUTAKA, “History of Media Technology: The Genealogy and Whereabouts of Digital Society”, p.76, 2013.
- [6] Hweng-gyo Park, “Amateur Radio (2)”, *The Post*, Vol.293, p.76, 1983.6.
- [7] Susan. J. Douglas, “Inventing American Broadcasting, 1899~192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194~207, 1987.
- [8] The Korean Amateur Radio League, “KARL'S 65 YEARS HISTORY, 1955-2020”, The Korean Amateur Radio League, 2023.
- [9] “Circular No. 81 : Regulations Covering Amateur Radio Operation by United States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July 2, 1947(RG 332, Entry A1 34374).
- [10] "Authorized Amateur Radio Stations in Korea", August 22, 1947(RG 332, Entry A1 1256).
- [11] “Memorandum from Brigadier General Roberts to Distribution: Authorized Amateur Radio Stations in Korea”, January, 25, 1949(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8).
- [12] Kwang-myeong Park,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Aid to Korea and the ECA·SEC from the Korean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Period”, THE DONG GOOK SA HAK, Vol. 68, 2020. DOI : 10.22912/dgsh.2020..68.313
- [13] “Amateur Radio Stations”, March 9, 1949(RG 554, AG676 Applications for USAFIK Amateur Radio Station Licence 1949).
- [14] “Letter”, March 15, 1949(RG 554, AG676 Applications for Applications for USAFIK Amateur Radio Station Licence 1949, Whang Kap Sung → Brigadier General Roberts).
- [15]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 “70 Years of Radio Management, 1947-2017”.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 2017.
- [16] “Letter”, April 29, 1949(RG 554, AG676 Applications for USAFIK Amateur Radio Station Licence 1949, W. E. Thiessen → Chief, Electrical-wave Bureau).
- [17] “Civil Amateur Radio Authorization”, May 27, 1949(RG 338, Momorandum from the Commanding General of KMAG to Chief,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Civil Amateur Radio Authorization).
- [18] “Letter”, June 2, 1949(RG 554, AG676 Applications for USAFIK Amateur Radio Station Licence 1949, W. A. Gregory → Chief, Communications Bureau). “Letter”, June 3, 1949(RG 554, AG676 Applications for USAFIK Amateur Radio Station Licence 1949, W. A. Gregory → Whang Kup Sung, Chief, Communications Bureau).
- [19] “Curtailement of Amateur Radio Operations”, March 1, 1951(RG 338,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 [20] “SWL Visit Essay: Find HI-1042/1052”, Radio Science, Vol. 11, 111~112, 1960.2.
- [21] Haring, Kristen. “Ham Radio’s Technical Culture”. The MIT Press, 2007.
- [22] The Post Culture, Vol. 50, December 1958.

Authors



Sangkil Yoon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Mass Communic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99, 2001 and 2010, respectively. Dr. Yoon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Visual

Media Communication at Shinhan University, Uijeongbu, Korea, in 2013. He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Visual Media Communication, Shinha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various media history.